

與 당권레이스 ‘문자 수령’...유출 배후 놓고 ‘진흙탕싸움’

문자 무응답한 韓 의도·金 여사 진의 등 난타전 지속 與 지지층 당권 적합도 韓61%·元14%·羅9%·尹1%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둘러싼 논란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의 우려와 자제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의도, 문자에 담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의향'의 진의, 그리고 지난 1월 보냈던 문자의 내용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소환된 경우 등을 놓고 후보 간 난타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나경원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읽씽’(읽고 답하지 않음) 논란으로 당원의 한 후보에 대한 실망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도 사실로 입증된 만큼, 당원과 지지층 표심이 급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후보도 페이스북에 “당시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단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전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인식과 태도로 대표를 맡으면 당도, 대통령도, 본인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 측은 김 여사가 당시 사과할 의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논란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으로 원희룡 후보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지목하고 있다.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총선 직후 자신이 김 여사와 57분간 통화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면서 “(김 여사가 통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사과를 못 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친윤 그룹을 저격했다.

한 후보측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논란을 중단시키고 싶지 않은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한 후보가 될 경우 본인들이 가진 정치적 힘이 많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 문자 5건 중 일부는 “한 후보가 갖고 있는 문자가 아니다. 여사가 5건의 문자를 보냈고, 일부는 (한 후보 전화기에서) 삭제됐다”고 전하며 한 후보가 이를 유출한 것이냐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한 전직 의원이 (문자 5건 전문을 보도한) TV조선 측에 불러줘서 그걸 적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도 했다.

원 후보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은 KB S 라디오에서 원 후보나 친윤 그룹에서 문자를 유출한 것이냐는 한 후보측의 의혹 제기 “1월14일 TV조선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새로운 게 공개된 게 아니라 그때 한번 공개됐던 게 소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결과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 캠프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 과반이 차기 대표로 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이날 발표됐

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3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1%는 한 후보가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14%, 나 후보는 9%, 윤 후보는 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무당층을 더하면 한 후보 45%, 원 후보 11%, 나 후보 8%, 윤 후보 1%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p(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3.0%p)이며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먹사니즘’ 유일한 이데올로기”

〈먹고사는 민생 문제〉

“AI 등 성장동력 확보 집중 2035년까지 주4일제 도입 ‘평화구축’ 실용적 외교 중요” 사법리스크 등은 언급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든 다 내던지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먹사니즘’이란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선언문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정국 현안이나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 문제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먼저 ‘주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2035년까지는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

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에너지·통신 등 분야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구축 노력”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당 발전 방향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인은 20만 당원 동지들이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다음 대선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

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안도걸 “자영업자 생계대책 시급”

내수 침체로 ‘나홀로 자영업자’ 10개월 연속 감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사진)은 10일 “내수 침체로 인해 ‘나홀로 자영업자’가 10개월 연속 줄어들었다”며 “올 6월에만 ‘나홀로 자영업자’는 13만5천명이 줄었는데 이는 8년8개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취업자는 2천800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1천명 증가해 30개월 만에 두 번째로 낮은 폭을 기록했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인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 감소하며 13만5천명 줄어

었다. 이 밖에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 수가 2만3천명 늘어난 가운데 임시직 취업자 수는 20만4천명 증가했다. 임시직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늘어나며 고용의 질적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자영업자의 생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당장 자영업자의 생계 지속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p>NEW 우라칸 SH-1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p>우라칸 SH-2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p>블리스 GOLD</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p>마스터즈 CH-15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스파이럴 숄자 특허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p>마스터즈 CH-20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족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p>
--	---	--	--	--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